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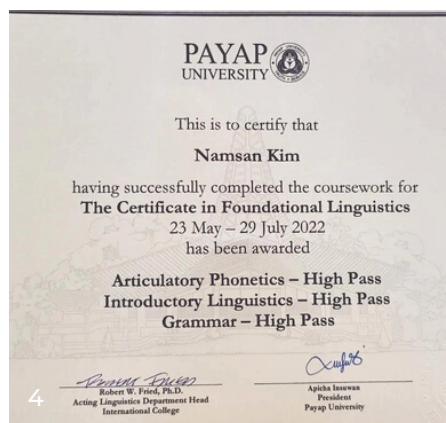


계절의 변화가 크지 않은 이곳이지만, 뜨거운 날씨에도 서늘한 바람을 종종 느끼는 요즘입니다. 한국은 밤이 익어가고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이겠네요. 반가운 소식도 있고,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는 가운데 빛진 자의 마음으로 동역자분들을 위한 기도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김 선교사는 감사하게도 지난 예비과정의 모든 과목을 높은 점수로 패스하였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아빠를 가족 모두 축하해주고 기뻐해 주었는데요. 짧은 2주간의 쉼이 끝나고 다시 정규 학기를 시작으로 더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음운론, 구문론, 사회언어학 3과목을 수강하는데, 매 수업 시간마다 주어지는 개인 과제와 조별 과제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전보다 더 이른 새벽에 일어나 체력을 위해 운동도 하고, 영어 공부도 보충해주고, 과제 준비를 하다 수업을 들으러 갑니다. 하교 후엔 또다시 학과 공부를 합니다. 저녁 식사 이후엔 가족에 배나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정해진 요일에 알뜰히 나누어 하고, 이후 잠들기 전까지 다시 과제를 합니다.

이것이 김선교사의 주중 일과입니다. 매주 과제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소논문 식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영어로 작성하고 발표하는 것이 아무래도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지금의 시간이 후에 사역지에서 값지게 사용될 것임을 신뢰하며 이번 학기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은 한차례 열감을 앓은 후 이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밤낮으로 아플 때는 아빠는 다음날 수업이 있어서 엄마가 간호하는데요, 이번처럼 두 아이가 이어서 아플 때는 엄마의 몸도 마음도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번 병원에 입원해 본 뒤라 당황하지 않고 돌볼 수 있었습니다.



1. 치앙마이대학 공원에서
2. 세라믹 공방에서 만들기
3. 자유로운 지아의 영어책 읽기 모습
4. 김 선교사의 지난 수업 수료증
5. 치앙라이의 화이트 사원 '왓 롱 쿤'
6. 바람을 느끼는 아빠와 지유
7. 세라믹 공방에서 채색하는 지유와 엄마
8. 미술관 관람
9. 아빠를 옆에서 관찰하는 지아

## Pray for us

1. 사역지 조율을 위한 의사소통을 잘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도록
2. 공부하는 김 선교사가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잘 마칠 수 있도록
3. 아이들과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부담보다는 즐거움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4. 가족들이 건강하고 삶에 생기는 작은 문제들을 지혜롭고 의연하게 잘 해결해 나가고 무엇보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5.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분들의 삶과 교회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하도록
6.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양가 가족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경험을 하도록





김남산 godovam  
박수희 lordinsh



namsan\_kim@gbt.or.kr  
su-hui\_park@gbt.or.kr

## Past Event Photos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다 엄마의 탓인 것 같아 불안과 염려와 죄책감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곳에 있는 동안 잘 먹고 잘 놀고 지내다 가자는 큰 목표가 있었지만, 부모님과 주변의 염려들에 불안이 금세 찾아옵니다. 이후 사역지로 옮기게 되면 다시 학교에 다닐 계획이라 아이들이 수업을 소화할 만큼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 그다음 목표인데,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아이들을 믿고 긴 호흡으로 흔들리지 않고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8월에는 3시간 거리의 치앙라이로 2박 3일 동안 짧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 전날 갑자기 자동차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아 더위에 고생 좀 하겠구나 했는데, 때마침 이틀 동안 비가 내려주어 감사하다가도 아이들이 수영하기엔 추운 날씨라 또 날이 좀 더웠으면 하고 마음에 변덕이 있었지요. 치앙라이 소수민족 마을에도 방문하려고 했는데, 비 때문에 길이 안 좋아 방문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공부의 부담 없이 가족이 오롯이 3일 동안 보내며 맛있는 음식도 먹고 쉴 수 있는 시간에 감사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집 밖으로 나가서 다양한 시간을 보냅니다. 다행히 이곳도 아이들과 함께 할 체험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몇 주 전에는 세라믹 공방에 가서 아이들과 점토로 접시도 만들고 채색을 하고 가마에서 구워져 나오길 기다리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미술관에 갔습니다. 전시 주제를 미리 확인하지 못해 '냉전'에 대한 어렵고 약간은 어두운 내용들이라 재미없어할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그림과 작품을 보며 자신들의 느낌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감탄하여 가족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년 8월 이후에 이동하게 될 사역지에도 본부와 협의해서 연락을 취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김선교사는 언어학 대학원 과정을 수강하고 있고 원래대로라면 이 학교는 3년을 다닌 뒤 학위를 받게 되는데요. 사실 저희는 번역사역자가 아닌 종족음악을 포함한 성경활용 사역이라 기본적인 1년 수업만 듣고 사역지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각각의 필드에서 요구하는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이동이 가능한지를 조율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따라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어지고 저희도 그에 맞춰서 잘 준비되어 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